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Port calls collapse hits Europe and containers hardest

5월 첫째 주 유럽지역 항만에 보고된 port-call(기항통지) 수가 전년동기대비 60%이상 감소하면서 평균 40% 중반 수준의 감소폭을 보인 전세계 항만들 중 가장 많이 감소 했다고 보도됨. 이는 COVID-19 영향이 상대적으로 유럽지역에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도됨. (TradeWinds)

Russia's largest oil producer expects output restrictions to run into 2022

러시아 최대 Oil생산업체 Rosneft는 석유감산합의가 2022년까지 연장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됨. 지난 주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회사측 감산량이 2,400만톤 수준이며 2021년에는 3,300만톤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발표함. 회사는 OPEC과 러시아, 기타 산유국들의 감산합의가 2022년까지 연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Upstream)

재무적 선주들 발주 늘린다

COVID-19 팬데믹으로 더 많은 중국 리스 업체들이 선박리스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이들이 재무적 선주가 되어서 신조선 직접 발주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CGT기준으로 올해 4월 말까지 중국 조선업계가 수주한 신조선의 31%가 중국 리스 업체들이 운영임대 형태로 발주한 선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Habben은 낙관, Skou는 비관

Hapag-Lloyd CEO Rolf Habben은 Maersk CEO Soren Skou보다 시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됨. Skou는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이 25% 감소할 전망이라고 보는 반면, Habben은 물동량 감소 수준을 10% 초반 수준으로 예상하며 신속한 조치를 통해 대처 가능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3兆 자구안' 최종 확정 앞둔 두산, 중공업 400명 휴업 통보

두산이 채권단에 제출한 3조원 규모 자구안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현금 확보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체 직원 6,000여 명 가운데 400명가량에 휴업을 통보했다고 18일 공시함.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명예퇴직 희망자 접수에서 회사 예상보다 적은 75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한국일보)

10년만 토지재평가로 자산 3,400억 증가...현대로템, 부채비율 363→274% 뚝

의왕연구소 및 창원공장토지의 가치를 시세에 맞춰 재평가한 결과 지난해 363%까지 치솟았던 부채비율을 1분기 말 274% 수준으로 낮췄다고 보도됨. 현대로템은 최근 계열사인 현대제철에 그린에어 지분 51%를 812억원에 매각했으며 의왕연구소 부동산 역시 현대모비스에 878억원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2건의 자산 매각을 통한 영업외이익 445억원 확보로 2분기 부채비율의 추가 하락이 기대된다고 보도됨. (서울경제)